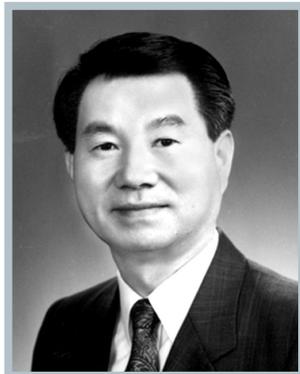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나아갈 길

## Prospectives of Research Institute of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오래동안 8만 의협 회원의 숙원이던 의협 자체의 의료정책연구소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3년 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일련의 의료사태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의료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는 그 나라의 국력과 발전 잠재력을 가늠하는 핵심분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를 일찍이 파악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제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이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정책을 펴왔다. 그로 인해 의료이원화, 의약품 오·남용,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 무계획적인 전문의 양산, 의료취약지역 문제 미해결 등 의료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지 제 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특히 지난 3년간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제공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일단 의심하고 보는 이른바 정책 신뢰의 붕괴현상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아울러 함께 국민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약사들과 약사단체와는 서로 대적하는 모양이 되었으니 민망하기 그지 없을 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개인적으로 존경과 신뢰로 구축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까지 서먹하게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정부는 개인적으로는 의사, 약사 그리고 환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적으로는 서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상대이고, 또 서로 고마워 해야 할 관계인데 왜 단체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다른 국책 혹은 민간연구소가 가질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 그것은 의협 회원, 즉 개원, 봉직, 교직에 있는 우리나라 의사들과 그들의 업무에 대한 자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모든 정책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좋을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의협과 약사회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검증해 보자는 것이 의협 회원들의 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한 바람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에 앞서 정책건의를 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르게 서게 하자는 바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다른 국책 혹은 민간연구소가 가질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 그것은 의협 회원, 즉 개원, 봉직, 교직에 있는 우리나라 의사들과 그들의 업무에 대한 자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야 말로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본 자료일 것이다. 따라서 의협 정책연구소는 타 연구소와 협조하여 이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훌륭한 정책 마련의 기틀을 제공하고 또 자체의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료정책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크나 큰 애정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서슴지 말고 자료를 보내 주고, 이것을 근거로 의협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의협 회원의 특별회비로 설립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성패는 회원들의 협조 여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연구소가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계 밖의 정책 입안자들은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록 의협에 속해 있으나 연구소가 의협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 아님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정책생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㉞